

철강

이란 철강산업 신규 제재 코멘트

●
철강
Analyst **민사영**
02. 6454-4875
sayeong.min@meritz.co.kr

미국, 이란산 금속 수출에 대한 제재 발표

지난 8일 이란은 새로운 핵합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60일 안에 우라늄 보유량을 제재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국제사회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미국은 이에 대해 이란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금속에 대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미국 제재의 실효성은 의문

이란은 2018년 기준 530만톤의 철강을 수출한 국가임. (순수출 420만톤) 이번 신규 제재에 따라 철강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면 국제 시장의 철강수급은 단기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이란은 이미 미국의 2차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철강 수출 대상국은 사실상 미국의 제재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실효성이 있다면 철근이 최대 수혜

만약,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면 철근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 이란의 철강 최대 수출국은 태국이며 그 뒤를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잇고 있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수출 품목은 Semi-finished steel 인데 대부분 빌렛일 가능성이 높음.

이란의 철강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도 건설투자에 사용되는 철근 수요가 가장 좋은 상황임. 따라서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빌렛 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철근 시세 상승이 전망됨.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산 통관 물량 감소와 국제 시세 상승의 간접적인 수혜가 전망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민사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